

■ 르포 - 쇠락해 가는 전남 우(牛)시장



지난 27일 새벽 합평읍 기강리 합평 우(牛)시장의 모습. 전남지역 우시장은 공동브랜드 확산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점차 쇠락해가고 있다. /합평=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도 사람도 절반... “牛~ 옛날이야”

농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우(牛)시장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우 공동 브랜드 출하분과 교통·통신 발달로 농가에서의 직거래가 성행하면서 소를 사고 팔기 위해 우시장을 찾는 농민들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이다. 농가에서 논밭 배고 소가 가장 큰 재산이던 시절, 자식 대학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새벽 일찍 소를 몰고 가던 ‘아버지’의 모습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6시, 전남의 대표적 우시장인 합평읍 기강리 합평 우(牛)시장. 거래를 앞둔 100여 마리의 소들이 쇠기둥에 묶여 있었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한 번 장이 열 때마다 150~200여 마리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이윽고 눈발이 날리는 칼바람 속에 거래가 시작됐다.
“요즘은 육질이 좋으니까, kg당 9천300원 주쇼.” 노란 점퍼를 입고 빨간 모자를 쓴 김기선(61)씨가 말했다. 김씨는 ‘거간꾼’이라고 불리는 합평 축협 소속 중개사다.
“에이~ 좋아보이는데, 좀 씨다(세다). 아따~ 200원만 깎아줘요.”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관심을 보였다.
“소꿈(시세)도 모르쇼? 우체 그 램다요. 딱 봐도 보통 소꿈 다르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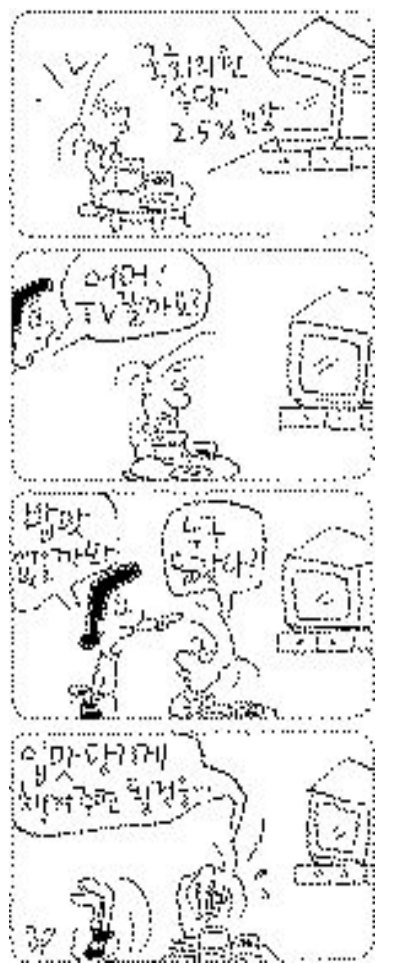
공동 브랜드·현지 직거래 성행
전남 17곳 중 13곳만 명맥 유지
활기찬 시장 풍경 사라져 아쉬움

여, 그 값으론 안 되제.” 김씨의 단호한 말에 40대 남자는 아쉬운 듯 돌아섰다. 이후 10분이 넘도록 원 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개사 김씨는 “4~5년 전만 해도 시장이 바디딜 틈도 부족했었지만, 이제는 사람도, 소도 절반이 채 안 된다”고 했다.
인근 송아지 경매장도 사람이 뜸해진 마한까지. 이곳에선 합평군이 자랑하는 브랜드 소 ‘합평천지한우’가 거래된다. 거래 방식은 전자 경매. 마음에 드는 송아지 숫자를 전자 단말기를 통해 경매하는 식이다.
단말기는 30여 개지만 12곳만 사람이 앉아있다. 15년째 우시장을 찾고 있는 최종석(45)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왔을 때는 하루 종일 시장이 열려 국밥도 먹고, 옷놀이도 구경하곤 했지만, 지금은 개장 1~2시간이 지나면 사람

장은 매각될 예정이다.
이처럼 우시장이 쇠락한 것은 무엇보다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한 영향이 크다. 예전에는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 시장에 한정됐지만,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으로도 거래자와 연락을 주고 직거래가 가능해졌다. 농민도 소를 직접 차에 태워 시장까지 가져가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특히 지역 축협을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공동 출하하는 최근의 풍조도 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전남에는 ▲지리산 순한 한우(고흥·구례 등 동부지역 7개 시·군) ▲나주배 한우(나주) ▲매력한우(영암) 등의 브랜드가 있다.
합평 축산업협동조합 임근문(48) 대리는 “대단위 출하가 늘고 현지에 오지 않고도 휴대전화 등으로 시세를 알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우시장이 썰렁해지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경매 등으로 시장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 수준만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 옛날이야’를 꿈꾸는 우시장의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가.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司試 출제 갑자기 변경
수험생들 “혼란” 반발

오는 2월 15일 치러지는 2007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 등 필수과목의 문항당 배점을 차등화하고 5지선다형을 5지~8지선다형으로 다양화하겠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26일 “이번 49회 사시 1차 시험부터 문항당 일률적으로 2.5점이던 필수과목(헌법·민법·형법)의 배점을 2점, 3점, 4점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중요하고 깊이 있는 문제의 배점을 높여 시험 변별력을 높이고 배점이 낮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문제를 출제해 시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이며 ‘문17(배점 4)



사업 실패로 생활고
50대, 목 매 자살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최모(59)씨가 자신의 집 방 문틀에 목을 매 자살한 것을 아내 박모(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돈 문제로 남편

과 말다툼을 한 뒤 ‘저녁밥을 먹자’고 말하러 방에 가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건설업을 하다 사업에 실패한 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최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강력범 맨손으로 잡아라?

경찰, 지금장비 불만
“범인 제압에 역부족”
최근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범인 검거 등에 사용하는 경찰 장비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형사들은 현재 지급된 장비는 강력범과 맞설 때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장구·무기·분사기·최루탄 등이다.
장구는 수갑·포승·호송용 포승·경찰봉·호신용 경봉·전자충격기·방패·전자방울 등이며,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함포·크레모어·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이 포함된다. 분사기·최루탄은 근접 분사기와 가스분사기, 가스발사

광주광역시 중흥특정범죄
누리는 3,636 회대단기!
수련선도시 피오리
062-367-9000

가구공장 불 4억 피해
지난 27일 낮 12시30분께 목포시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내 모 가구공장 에서 불이 600여평의 공장 내부와 창고 등을 태워 4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목포=이성규기자 lsh@

유명 연예인 3명 환각제 복용 수사
○서울 마포경찰은 27일 영화배우 S씨와 가수 K·L씨의 환각제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넘겨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가라오케 술집을 운영하는 구모(33·구속)씨로부터 “S씨 등이 엑스터시를 복용한 뒤 몇 시간씩 춤을 추곤 했다”는 진술을 확보.
○엑스터시는 알약 형태의 마약류로 한 번 복용하면 환각효과가 4~6시간 지속되고,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면 효과가 더 강하게 전달돼 속칭 ‘도리도리’로 불린다.
/연합뉴스

호기심 가득한 눈이 모이는 곳!
호기심 가득한 손을 기다리는 곳!
- 2007 동물아카데미
주최: 한국동물보호협회, 후원: 광주광역시, 후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후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후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